

[대한국사-윤승규]

2017년 하반기추가채용 지방직 9급

한국사 총평 및 해설(A책형)

총 평

2017년 하반기 추가 채용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은 비교적 평이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대략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3문항 정도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되었다.

시대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1문항, 고대사(삼국~남북국)에서 5문항, 중세사(고려)에서 3문항, 근세~근대 태동기(조선사)에서 4문항, 근현대사의 한말에서 2문항, 일제 강점기(독립운동)에서 2문항, 해방 이후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분류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를 포함한 정치사의 비중이 12문항, 경제사 2문항, 사회사 1문항, 문화사 4문항, 통합형 1문항이 출제 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주제 중 어려운 부분은 세계 기록 유산 중 의궤 문제, 평안도 관련 문제, 남북 관계 문제 등이다. 이번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두 문항 정도 출제되어 공정성 및 객관적 평가 부분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7년에 출제된 기출 문제에서 끊임없이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문제 유형 분석

분류사 시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형	계
선사	•고구려					1
고대	•백제 성종 •발해의 통치체제	•신라촌락문서	•진골귀족	•황룡사 9층 목탑		5
중세	•현종	•녹과전		•의천(신편제종교장총록)		3
근세 ~근대 태동기	•세종			•의궤 •조선 후기의 사상	•조선 후기 평안도	4
한말	•신미양요 •시기별 사건 (1904. 2.~1907. 7. / 1907. 7.~1917. 7.)					2
일제	•신간회 •의열단					2
해방이후	•카이로 선언 •1962년~1971년의 사실 •남북 관계 관련 사실 순서					3
계	12	2	1	4	1	20

문제 및 해설

문 1. ‘신라촌락(민정)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를 중시하여 소아의 수까지 파악했다.
- ② 내시령과 같은 관료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③ 촌락의 경제력을 파악할 때 유실수의 상황을 반영했다.
- ④ 촌락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으로 촌주가 파견되었다.

정답 ④

정답해설

④ 촌주는 촌락 지배의 책임자로서 지방관이 아니다. 촌주는 몇 개의 촌락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촌주가 개별촌락 단위를 관장하였다는 이설도 있다), 민정문서 작성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2.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강은 인도의 근본이니, 군신·부자·부부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에게 명하여 고급의 사적을 편집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고, 인쇄하게 하여 서울과 외방에 널리 퍼고자 한다.

- ①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 ②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적극 중용하였다.
- ③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여 국가의 예법과 절차를 정하였다.
- ④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으로 정하여 전세를 경감해 주었다.

정답 ①

정답해설

제시문은 세종이 『삼강행실도』 간행을 명하는 내용이다. 세종은 이 책을 간행하여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세종 시기에 최윤덕으로 하여금 4군을 개척하게 하고, 김종서로 하여금 6진을 개척하게 하여 압록강~두만강 선까지 국경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민정책을 실시하여 변방의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오답해설

②, ③ 성종 시기의 사실이다.

④ 세종은 전분6등법을 제정하여 3등 전품(상등품·중등품·하등품)으로 나누었던 기존의 양전제를 6등 전품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수의 하등전을 1·2·3등전으로 편입시켰다.

문 3.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30년, 달솔 노리사치계를 왜에 보내 석가여래상과 불경을 전했다.

- ①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②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③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④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답 ②

정답해설

노리사치계는 552년 성왕의 명으로 석가모니불의 금상 1구, 번개, 경론 등을 일본에 전하였으며, 고류사 미륵반가사유상(7세기), 호류 사의 백제 관음상이 제작되는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② 성왕은 538년 수도를 웅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일시 ‘남부여(南扶餘)’라 개칭해 부여족으로서의 전통을 강조하였다.

오답해설

① 침류왕, ③ 고국천왕, ④ 개로왕에 대한 설명이다.

문 4. 고려시대 토지 종목 중 ㉠에 해당하는 것은?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근래 병란이 일어남으로 인해 창고가 비어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인(士人)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원대 경기 8현을 품등에 따라 (㉠)으로 지급하소서.”라고 하였다.

『고려사』

- ① 공음전
- ② 구분전
- ③ 녹과전
- ④ 사패전

정답 ③

정답해설

③ 원종 시기인 1271년 녹봉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녹과전으로 지급하였다. 녹과전은 충렬왕 때(1278) 재정비되었으며, 우왕 시기까지 지급되었다.

오답해설

- ① 공음전은 1049년(문종 3)부터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지급된 세습 가능한 영업전으로 문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② 구분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 또는 자손이 없이 퇴직한 70세 이상의 군인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 ④ 사패전은 몽골의 침략으로 농토가 황폐화되고 유민이 많이 발생하자 정부가 개간을 목적으로 지급한 토지이다. 사패전은 개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와 동시에 전조를 면제받았다.

문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좌식자(坐食者)가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곡물, 물고기, 소금을 저서 날라 공급한다.
○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부경(桴京)이라고 부른다.

- ①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
- ②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했다.
- ③ 금, 은의 폐물로써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무덤(적석총)을 만들었다.
- ④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정답 ①

정답해설

자료는 고구려의 지배층에 대한 내용이다. 고구려의 왕족과 각 부의 대가들이 좌식 계급으로 부를 독점하고, 자신의 집에 부경을 소유하였다.



① 가담안은 정답이 ①로 되어 있으나, 우제점법은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삼한에서도 존재하던 관습이므로, 오류 문제로 추정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에는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길흉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소를 죽여서 굽의 모양을 보아 함하는 것을 길하다고 여겼고, 벌어드는 것은 흉한 것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장조금이는 지은 『한원』 권30 고려(여기에서는 고구려를 가리킴)조에 인용된 『위략』에 의하면 고구려에도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다고 하며,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 웅천 패총에서 6점의 복골(卜骨)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삼한 사회에 서도 역시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오답해설

②, ③, ④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6. 밑줄 친 ‘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인(神人)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아들이로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답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 백제에서 아버지(阿非知)라는 공장을 초빙하여 이 답을 건축하고 용춘이 이를 감독했다.

『삼국유사』

- ① 자장 율사가 건의하여 세워졌다.
- ②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 ③ 목조탑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
- ④ 선종이 보급되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다.

정답 ①

정답해설

사료는 선덕여왕 시기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에 관한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① 자장이 중국 태화지 옆을 지날 때 신인이 나타나 사료와 같은 내용을 듣고, 귀국 후에 선덕여왕에게 답 건립을 건의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오답해설

- ② 선덕여왕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황사 모전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승탑에 대한 설명이다. 대표적인 신라의 승탑은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으로,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불교가 흥성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문 7. 다음 사건으로 즉위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도 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 ①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 ② 지방관이 없는 속군에 감무를 파견하였다.
- ③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 ④ 개성부를 경중(京中) 5부와 경기로 구획하였다.

정답 ②

정답해설

자료는 1009년 강조가 일으킨 정변에 대한 내용이다.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은 시해되었고, 현종이 즉위하였다.

② 예종 재위기의 일이다. 예종은 외관 파견 지역을 확대해 임시 지방관인 감무를 각 지역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오답해설

- ① 현종 재위기에 거란의 침략에 대한 격퇴를 기원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 ③ 현종은 자신의 부모인 안종과 현정왕후(시호는 효숙왕태후)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법상종의 본찰인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 ④ 현종은 성종 때의 10도 체제를 5도 양계로 정비하고 세부 행정 단위를 4 도호부·8목과 경기제 및 군현제로 완비하였다.

문 8.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종의 일파인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하였다.
- ② 거조암, 길상사 등에서 정혜결사를 주도하였다.
- ③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찾았다.
- ④ 성속무에 사상을 주장하면서 종단을 통합하려 하였다.

정답 ③

정답해설

『신편제종교장총록』은 의천이 편찬하였다. 의천은 요나라·송나라·일본 등에서 불교서적 4,000여권을 수집하고 국내의 고서도 모았으며,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이들 경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간행목록으로서 『신편제종교장총록』 3권을 편집하였다.

③ 의천은 원효의 원융회통에 입각한 화쟁 사상에서 불교 통합의 해법을 찾으려 하였다.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의 업적을 찬양하면서도, 원효를 더욱 숭상하여 분황사를 찾아가 그의 상전에 제사를 드렸고, 그를 ‘해동교주·해동보살·성사(聖師)’ 등으로 숭상하였다. 또한 원효의 사상에 대하여 ‘성상(性相)을 융통히 밝히고 고금을 세밀히 감싸면서 백가들의 다투는 실마리를 화합시켰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오답해설

① 보우, ② 지눌, ④ 균여에 대한 설명이다.

문 9. 발해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정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 ② 중앙의 핵심 군단으로 9서당이 있었다.
- ③ 정당성 아래에 있는 6부가 정책을 집행하였다.
- ④ 중앙과 지방에 각각 6부와 9주를 두어 다스렸다.

정답 ③

정답해설

③ 발해는 중앙 정치 조직으로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여 정당성 중심의 독자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오답해설

①, ②, ④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발해는 관리 감찰기구로 중정대를 두었고, 중앙군으로 10위가 있었다. 또한 발해는 전국에 걸쳐 5경, 15부, 62주 및 다수의 현을 두어 다스렸다.

문 10. 밑줄 친 인물들이 속한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진덕여왕 2년, 김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났는데, 종자인 운군해가 대신 피살되었고 그는 무사히 신라로 귀국했다.
○ 마침 앞천의 물이 불어 김주원이 왕궁으로 건너오지 못하니, 상대등 김경신이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

- ① 관등과 상관없이 특정 색깔의 관복을 입었다.
- ②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며 과거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③ 죄를 지으면 본관지로 귀향시키는 형벌이 적용되었다.
- ④ 중앙 관부와 지방행정 조직의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정답 ④

정답해설

밑줄 친 김춘추, 김주원, 김경신은 모두 진골 귀족이다.

④ 진골 귀족층은 정치·군사 정권을 장악하고 5관등(대아찬) 이상의 요직을 독점하였으며, 집사부의 장관직인 중시(시중)나 각 부의 장관직인 영(令)은 진골만이 할 수 있었다.

오답해설

- ① 신라는 관등에 따라 관복이 자·비·청·황색으로 구분되었고, 진골은 17관등에 모두 속할 수 있었으므로, 관등에 따라 4가지 다른 색의 관복을 입었다.
- ② 6두품 출신의 유학생과, 선종 승려를 중심으로 골품제를 비판하고, 능력 중심의 정치 운영과 과거제 도입 등의 개혁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귀향형은 고려시대 문벌귀족에게 적용하던 형벌이다.

문 11.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광성보를 침공하였다.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격렬히 항전했지만, 미군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미군은 물러갔다.

- ①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 ②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 ④ 이 사건 당시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정답 ②

정답해설

자료는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7.)을 구실로 일어난 신미양요(1871)에 대한 내용이다.

② 신미양요 직후 대원군은 전국에 척사교서를 내리고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건립하였으며,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오답해설

- ① 일본에 수신사 로 다녀온 김홍집으로부터 <조선책략>이 유포되자, 이에 반발하여 개화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1881년 이만손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유생들이 『조선책략』의 내용에 반발하여 「영남만민소」를 올렸고, 「영남만민소」로 촉발된 위정척사 운동은 전국적인 유생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 ③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신미양요 이전의 일이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2번에 걸친 조선과의 통상 요구가 거절된 후 1868년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가 실패하였다.
- ④ 병인박해를 계기로 발발한 병인양요(1866. 6.) 당시 양헌수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문 15.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례도감의궤는 임신왜란 이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 ② 조선왕조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③ 정조 때 화성 행차 일경, 참가자 명단, 행차 그림 등을 수록한 의궤가 편찬되었다.
- ④ 가례도감의궤의 말미에 그려진 반차도에는 당시 왕실 혼례의 행렬 모습이 담겨 있다.

정답해설

정답 ④

문 16. 조선 후기 평안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②

② 두 차례의 호란 직후 이 지역의 인구는 전란이 집중된 경기, 황해권과 더불어 포로(기록은 50만 이상으로 전하나 10~20만 정도로 추정) 및 유민의 증가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특성이 인구 급감이라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답 유추의 모호성이 보이는 문제로 이러한 문항의 출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문 1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현의 6조가 결의 되었다.
- ② (가) -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되었다.
- ③ (나) - 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등을 체포하였다.
- ④ (나) - 일본인 메카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답해설

③ 1911년에 일어난 105인 사건은 일제가 무단 통치의 일환으로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을 확대·조작하여 애국 계몽 운동가들을 투옥한 사건 이다.

① 1898년 10월, ② 1900년 10월, ④ 1905년의 일이다.

문 18. 조선 후기의 사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울 부근의 일부 남인 학자는 천주교를 수용하였다.
- ㄴ. 정조는 기존의 문체에 얽매이지 않는 신문체를 장려하였다.
- ㄷ.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禮訟)이 전개 되었다.
- ㄹ. 노론과 남인 간에 인정(人性)·물성(物性) 논쟁이 전개 되었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sqsupset$

정답해설

7. 천주교는 18세기 후반 근기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에 의해 학문으로서 연구되다가,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오면서 신앙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㉔. 예송 논쟁은 현종 시기에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사건이다.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에 대한 자의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기해예송(1659)이 일어났고, 인선왕후(효종비)가 죽은 뒤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갑인예송(1674)이 일어났다.

나. 정조는 문풍이 비속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1792년 문체반정을 추진하였고, 당시 자유로운 문장으로 쓰인 많은 글들을 패관 소품(裨官小品)의 문체로 규정, 탄압을 가했다.

- 근. 영조조에 있었던 인성과 물성에 대한 논쟁은 노론 내부에서 전개되었다. 충청 지역의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반면, 서울 중심의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했다.

정답 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이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추진되었다. 따라서 자료의 밑줄 친 ‘시기’는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시행된 1962년부터 1971년까지를 의미한다.

① 경부 고속 국도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2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다.

오답해설

- ② 1993년, ③ 1996년, ④ 1977년에 일어난 일이다.



문 19. 밑줄 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이 단체는 일제(日帝)의 요인 암살과 식민 지배 기관 파괴를 목표로 삼았다. 이 단체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이념적 지표로 내세웠다.

- ①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도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
- ③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④ 이 단체에 속한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정답 ④

정답해설

자료의 밑줄 친 ‘단체’는 의열단이다.
④ 의열단원인 김익상은 1921년 김원봉으로부터 총독 암살 밀령을 받고 총독부에 잠입하여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총독 암살은 실패하였다.

오답해설

- 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1940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 ② 1940년 임정을 중심으로 통합된 한국독립당은 임정의 여당 역할을 하였으며, 해방 후 임정과 함께 귀국하여 김구를 중심으로 한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 ③ 양세봉 중심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 1932년 영릉가를 공격하였다.

문 20.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ㄴ.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었다.
ㄷ.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ㄹ.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ㄷ → ㄹ → ㄱ → ㄴ

정답 ②

정답해설

- ㄱ. 1991년 9월 남북한은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별개의 의석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ㄷ.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 ㄹ.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서(북미 제네바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KEDO의 발족이 1995년 합의되었다.
- ㄴ.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89년 고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98년 11월 18일 ‘금강 호’가 첫 출항을 했다.